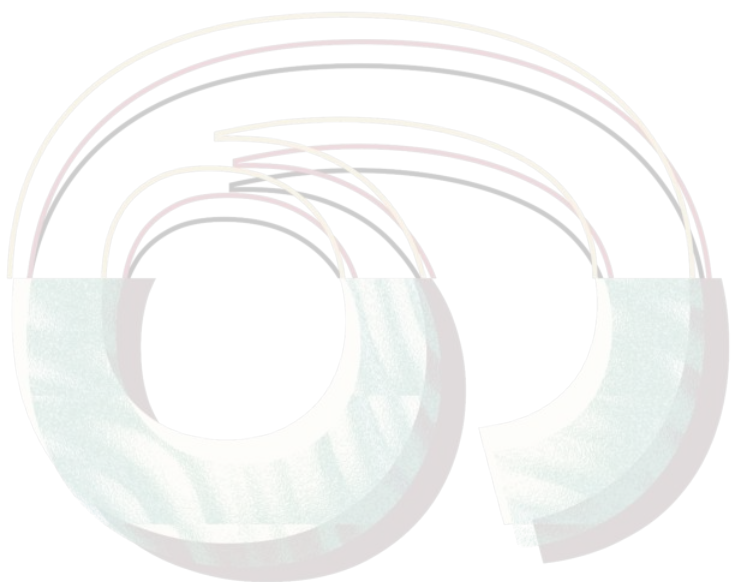




16P

목차

Contents

서문	Curation	006
인사말	Greeting	008
교수진	Faculty	010
작가	Artist	012
작품	Works	016
프로필	Profile	124

서문

Curation

프레임은 대상을 구분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틀이다. 하나의 프레임은 제한된 장면만을 보여주지만, 서로 겹쳐질 때 각각의 프레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더 넓은 모습이 드러난다.

이 전시에서는 한 사람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각자의 프레임 안에서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타인은 배경으로 존재한다. 반대로 타인의 프레임에서는 그가 주체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배경이 된다. 이러한 위치의 전환은 우리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타인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임을 마주하게 한다.

《16P1》은 이 관계를 하나의 기호로 나타낸다.

참여자 열여섯 명 중 한 명을 선택하는 순열의 표기에서 착안하여 각각을 독립된 주체로 바라본다. 이들은 같은 공간 안에 나란히 놓이고 교차하며 다층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16P1》은 서로의 배경이 되어준 열여섯의 주체가 함께 그려낸 장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Frames are structures that set things apart and guide how we look at them. A single frame shows only a limited scene, but when frames overlap, they reveal a wider view that none of them could show on its own.

In this exhibition, each person is presented as a single frame. Within our own frame, we are the subject of our lives, and others exist as the background. In someone else's frame, they become the subject and we become their background. This shift in position helps us see ourselves as the subjects of our own lives. It also brings us face to face with the fact that others are living their own lives as subjects too.

[16P1] expresses this relationship as a single notation.

The title comes from the permutation notation for choosing one out of sixteen participants, and it treats each of them as an independent subject. Placed side by side in the same space, they intersect and form layered, multidimensional shapes.

[16P1] presents a scene drawn together by sixteen subjects who have each become a background for one another.

인사말

Greeting

4년의 시간을 지나, 저희의 첫 졸업전시를 선보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 다른 작업을 이어오며 4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작업을 지켜보고 쌓아온 시간이 이번 전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 묵묵히 믿고 응원해 준 가족, 그리고 같은 작업실에서 서로의 배경이 되어준 동기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6P1》은 열여섯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 전시가 끝이 아니라 저마다의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 국민대학교 도자공예학과 졸업생 일동

After four years, we are pleased to present our first graduation exhibition.

We spent these years in the same space, each carrying on with our own work. The time we built up watching each other's work became the foundation of this exhibition.

We extend our deepest gratitude to our professors for their generous guidance, to our families for their faith and support, and to our classmates, who became a background for one another in the same space.

《16P1》 is a record of the time sixteen people have built up, each in their own place. We hope this exhibition marks not an end, but a beginning that leads to each of our next scenes.

Thank you to everyone who visits.

The Graduating Class of 2026, Department of Ceramics,
Kookmin University

교수진

Faculty

이상용

정진원

박중원

안정현

작가

Artist

권민지	016
권서연	024
김다빈	034
김예진	040
손예린	048
신혜정	056
오미리	062
오 윤	068
오한슬	074
이윤서	080
임성만	086
조서영	092
조서현	098
조영창	104
지다현	110
채희상	116

작품

Works

권민지

Minji Kwon

@olimilliminz1

kwonmj1119@naver.com



쌓아 닿기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무언가를 향한 마음이 쌓여 하나의 지점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작업이 시작되었다. 흠을 한 겹씩 올려 만든 단위들을 다시 쌓아 올리며 전체를 이루어간다. 반복되는 행위와 축적의 시간은 물질 안에 남는다.

완성된 작업은 일상의 공간에 놓여 오랫동안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가구의 형식으로 풀어냈다. 그 자리가 각자의 마음을 이어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경계

흥분과 불안은 반대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다가와 작용하는 방식에서 닮아 있다. 강한 자극이 만들어내는 흥분과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불안은 서로 다른 계기에서 시작되지만, 감각을 고조시키고 긴장을 증폭시키며 다가온다.

나는 이 두 상태가 각각의 성격으로 구분되기 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순간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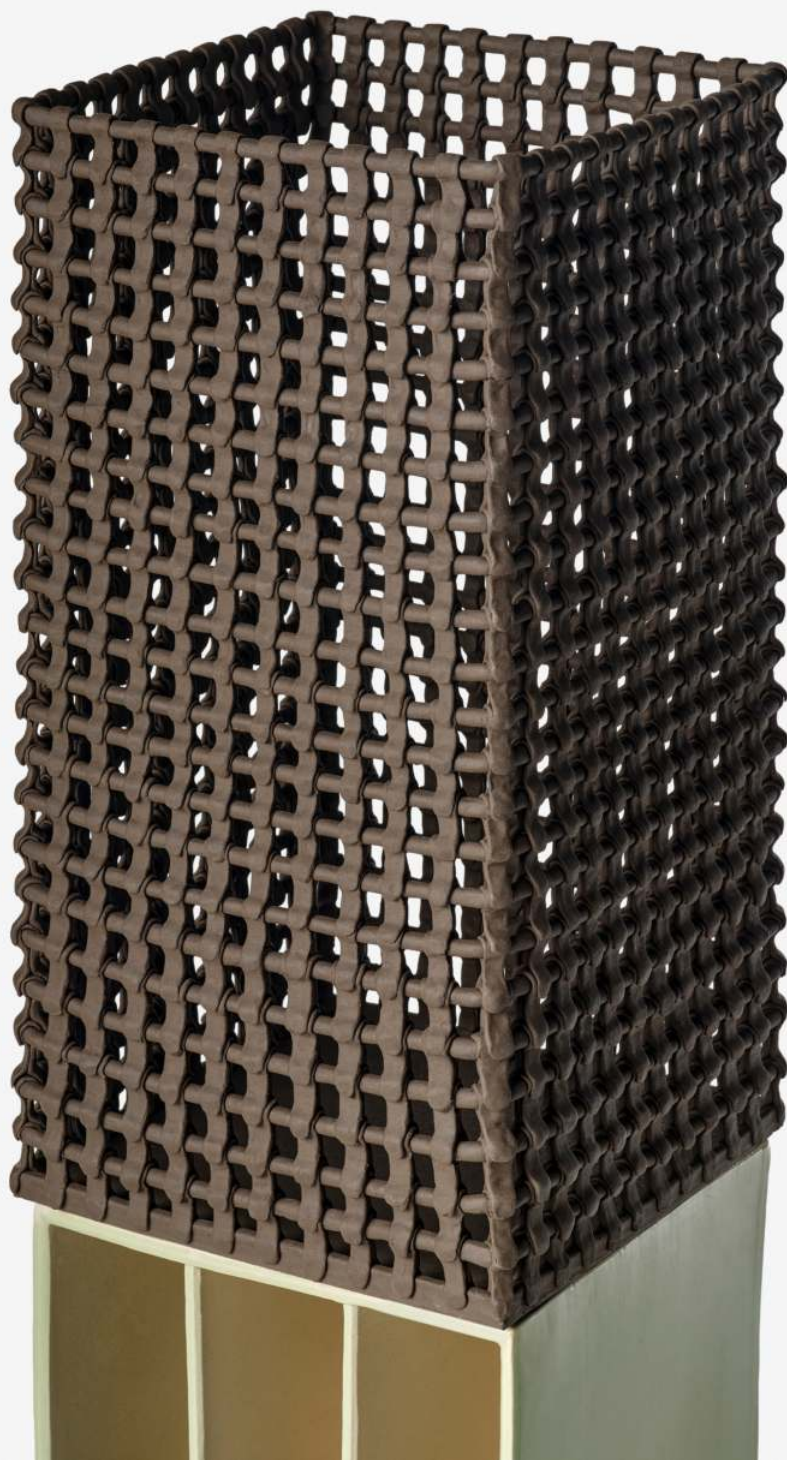
본작업은 이러한 지점을 표면의 변화로 풀어냈다. 명확한 이름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모호한 경계의 순간을 다룬다.



쌓아 담기

혼합소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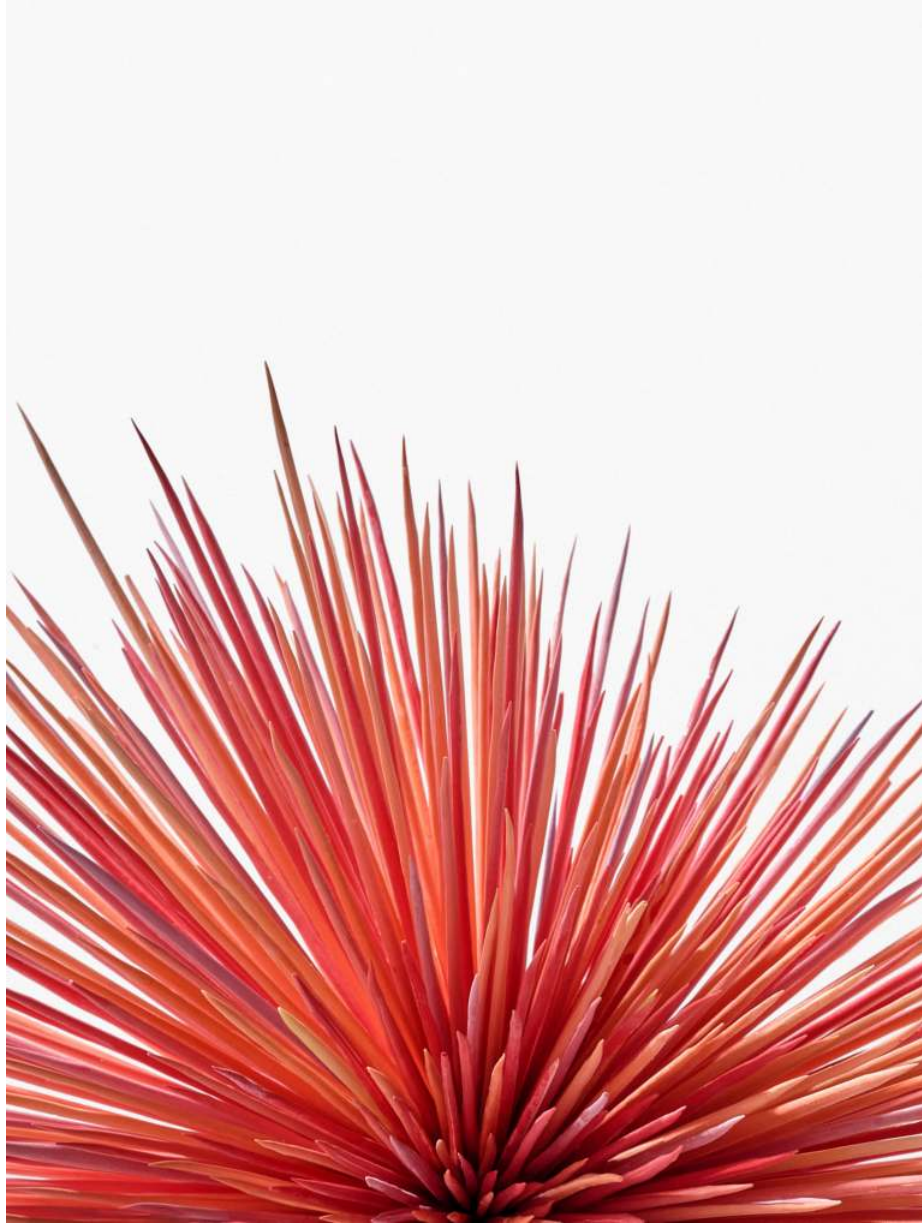
150*150*1800 / 170*170*1700 / 250*250*1260 / Ø100*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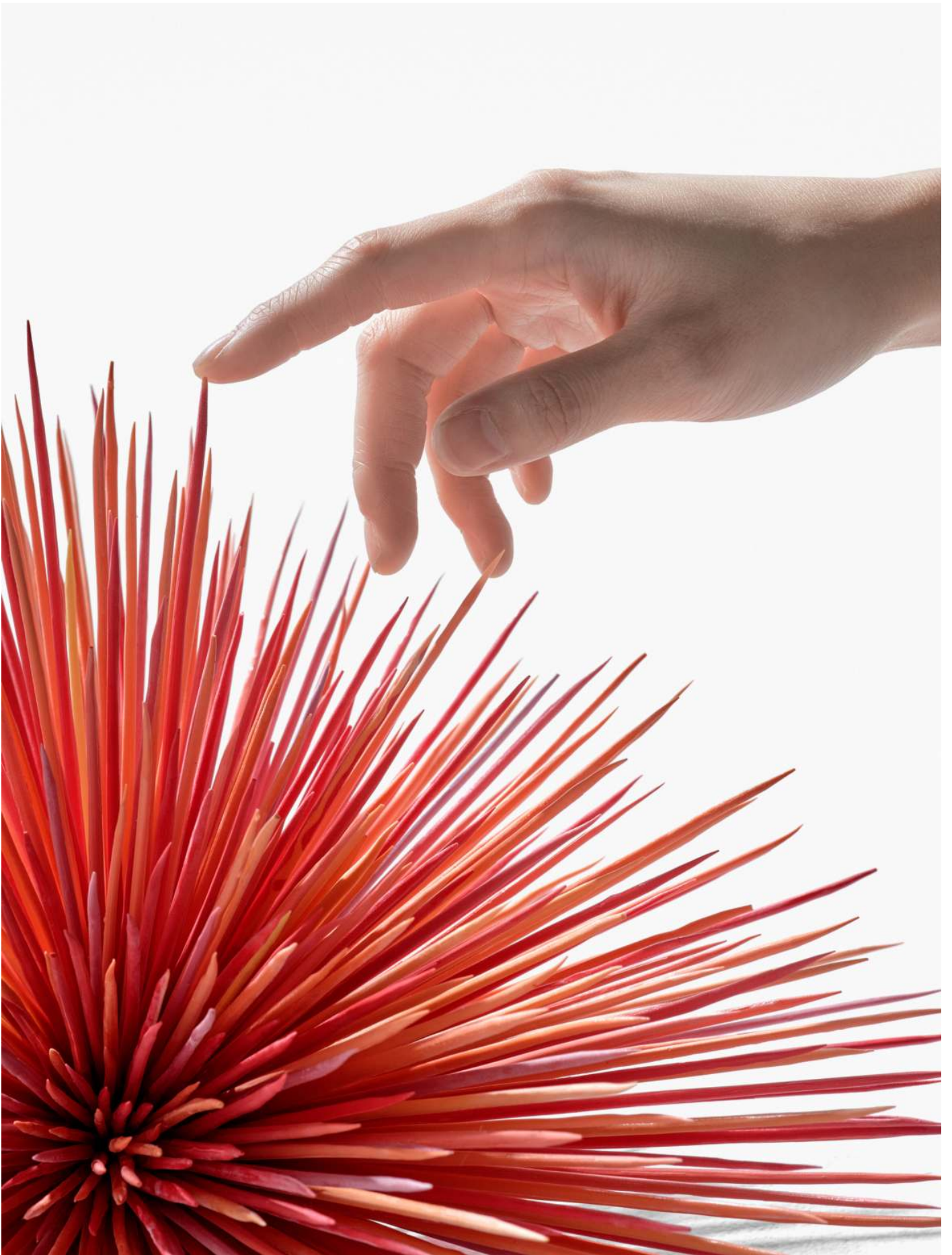






경계
수퍼소지, 안료
작품별 상이





권서연

Seoyeon Kwon

@tjdus.kwon

kwonsy0124@naver.com



Dalmatian

달마시안의 독특한 점박이패턴을 도자 조형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 'Dalmatian Plantation'을 참고했다.

"달마시안 농장을 세우는 거야
우리 무리가 마음껏 거닐 수 있는 곳으로
이 새로운 장소를
우리 모두가
좋아하게 될 거야, 이 농장 집을!
달마시안 농장 집을!"

Ragdoll



Ragdoll physics

: 물리 엔진으로 캐릭터를 '축 늘어진 인형'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연출.

FPS 게임 등 수많은 게임들을 하다 보면 죽은 시체가 실 끊긴 인형마냥 널브러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링 오브젝트들에 자연스럽게 얹혀지며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래그돌 효과이다. 이름 자체가 축 늘어진 "붕제인형(Ragdoll)"처럼 늘어져서 죽는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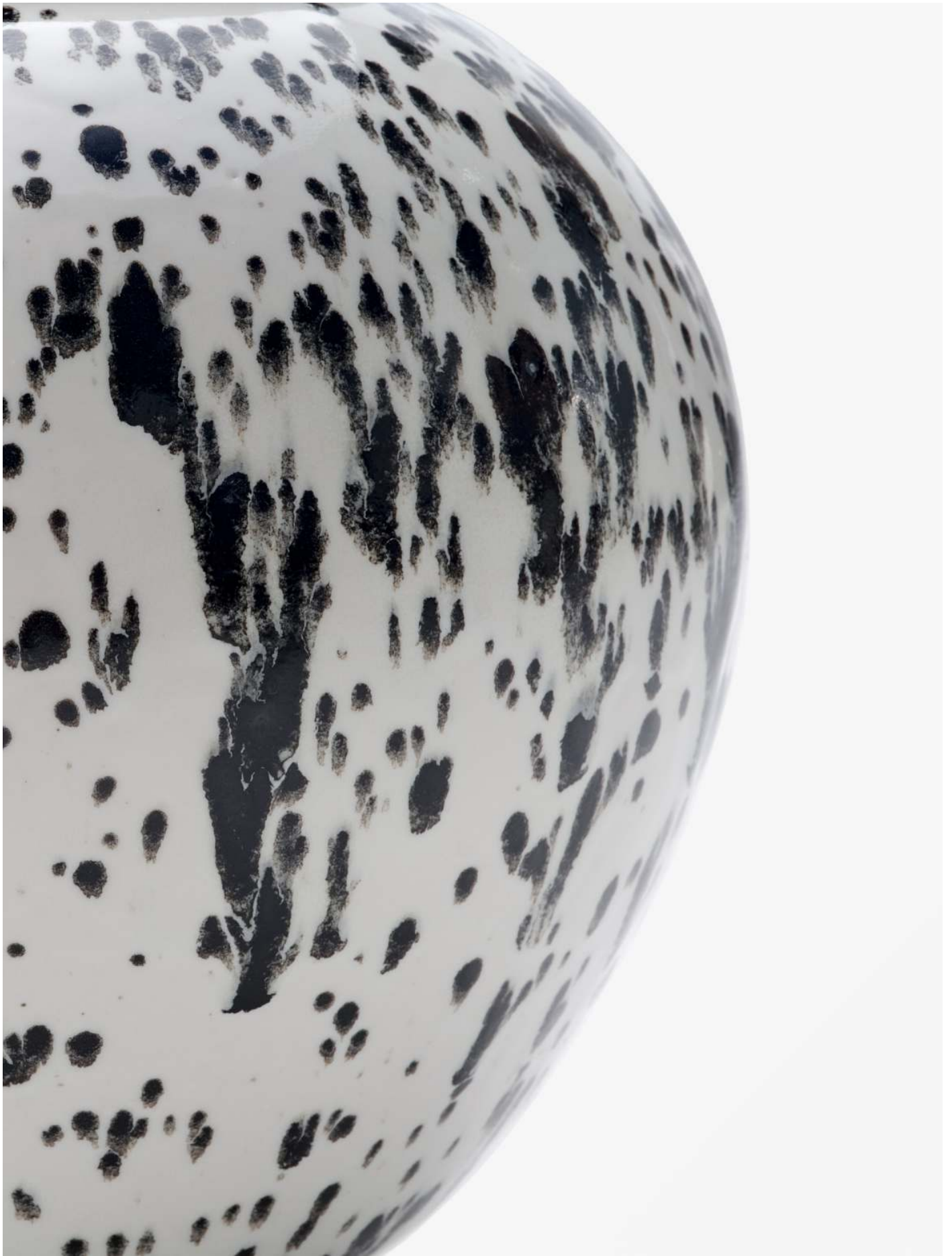
현실에서도 이왕 넘어지거나 떨어질거면 몸을 뻗뻗하게 세우는 것보다 인형처럼 힘을 완전히 빼는 것이 더 안전하다.

"When you fall, it's safer to just go ragdoll than to tense up."



Dalmatian
D1, CG
210*21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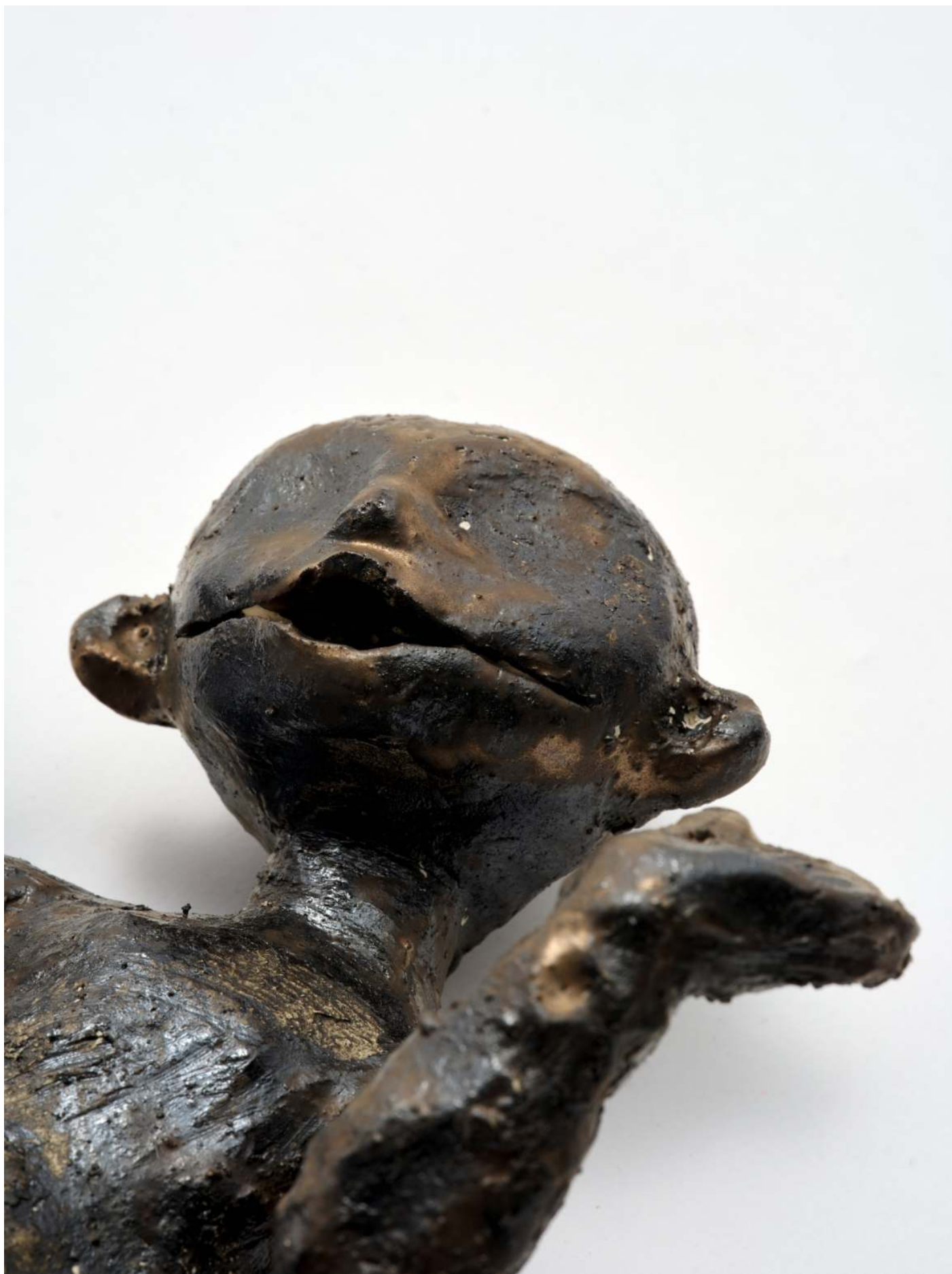




Ragdoll
페이퍼클레이, 조형토
작품별 상이









김다빈

Dabin Kim

@dabynn__

db020314@gmail.com

묘미(猫美)

어릴 적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이 어떤 촉감일지 자주 상상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다가도 이내 아득해지는 것이 구름이었고, 만질 수 있다면 분명 솜처럼 보드랍고 폭신할 거라 생각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된 건 반려묘 '묘미'를 처음 만난 날이었다. 손끝에 감기는 부드러운 털, 둥글둥글한 몸, 팔 안에 얹히던 따뜻한 무게. 어린 날 그려온 구름의 촉감이 그대로 거기 있었다. 닿을 수 없는 하늘 위의 것이라 믿었던 구름과 닮은 것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선명하다.

시간이 흘러도 그 촉감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으면 했다. 사진처럼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기억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쓰면서 계속 이어지는 기억으로 두고 싶었다. 그래서 그 촉감을 곁에 두고 오래 마주할 수 있도록, 도자기 합과 식기로 이루어진 <묘미(猫美)> 시리즈를 제작했다. 구름의 둥근 형태에 묘미의 모습을 단 순화해 담았고, 몸을 쓰다듬을 때 손바닥을 따라 흐르던 곡선과 손에 잡히던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표면은 광택 없이 매트하게 마감해 구름과 털의 부드러운 질감을 더했으며, 뚜껑 위에는 작은 점을 도드라지게 새겨 손끝에 닿는 촉감으로 묘미의 흔적을 남겼다.

합의 뚜껑을 열고 그릇을 손에 올릴 때마다, 그 안에 머문 온기가 조용히 되살아난다. 닿을 수 없던 구름이 어느 날 곁으로 왔던 것처럼, 이 작품이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그날의 기억을 불러오기를 바란다.

보이는 만큼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순간의 행동이나 태도, 제한된 정보처럼 그 사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드러난 모습만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전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구조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간극에 주목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메커니즘을 '창'이라는 형태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했다. 창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바깥을 바라보게 하지만, 동시에 정해진 틀 안에서 특정한 장면만을 보여준다. 같은 공간이라도 어떤 창을 통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장면이 달라지듯,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 역시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작업에서는 서로 다른 크기와 형태의 틈과 구멍을 가진 도자 오브제를 구성하여, 각기 다른 시선의 틀을 시각화하고자 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대상의 전부가 아니라, 각자의 시선에 의해 선택된 한 장면일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해 보이는 모습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눈앞에 드러난 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얼마나 쉽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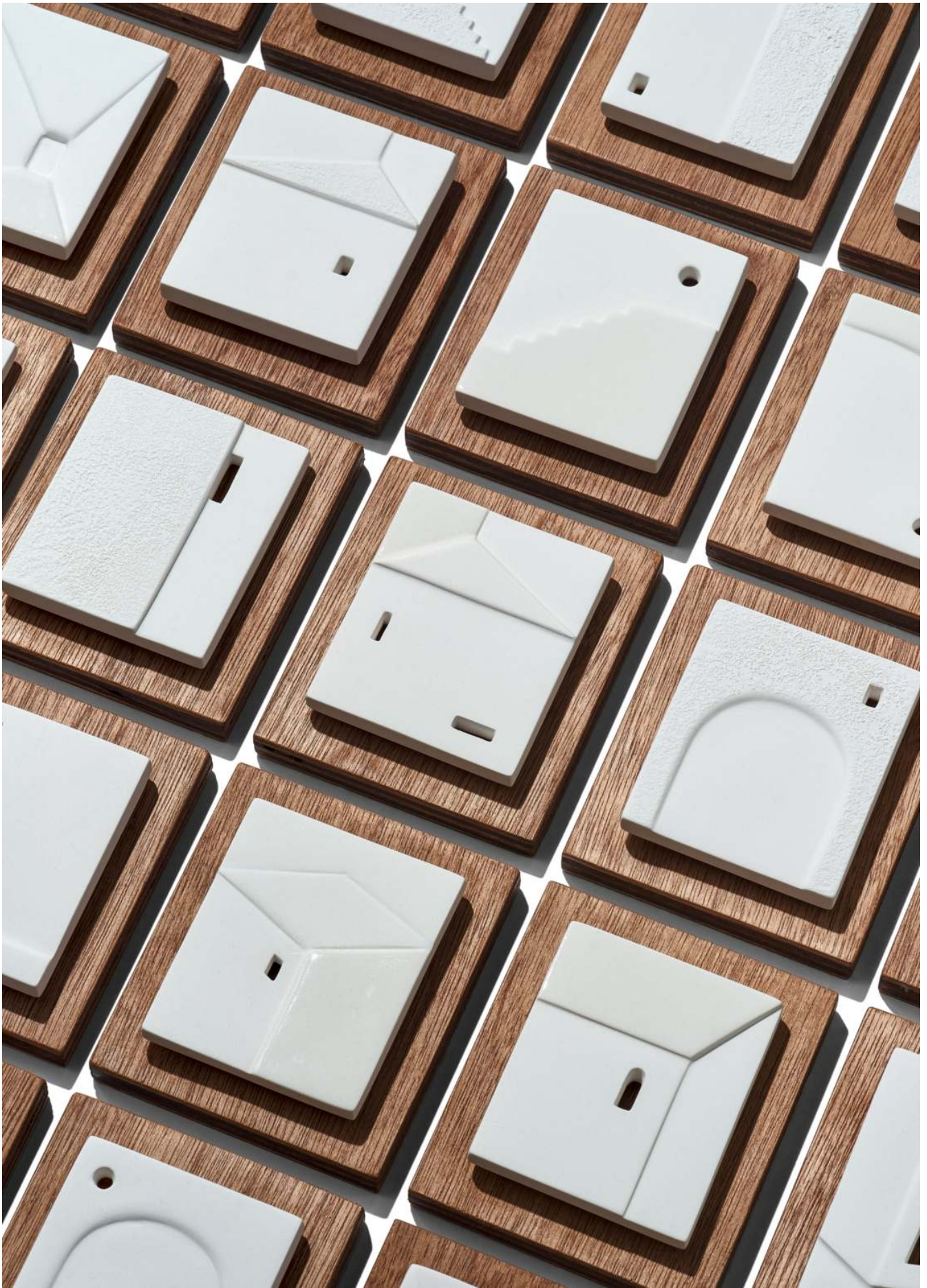


묘미(猫美)
슈퍼슬립, 안료, 투명매트유, 백설기유, 수금
작품별 상이





보이는 만큼
D1, 투명유
100*115*25



김예진

Yaejin Kim

amy5194@naver.com



허들

펭귄의 허들링(Huddling)에서 착안한 작품으로, 혹독한 환경과 난관(Hurdle)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버텨내는 연결의 형태를 시각화하였다. 개별적인 존재들이 모여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서로 기대어 온기를 나누는 황제펭귄의 모습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복되는 형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통해 밀집된 허들링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각각의 요소가 모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과정에서 집단의 움직임과 구조적 특징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Hurdle'이라는 제목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라는 의미와 허들링(Huddling)에서 착안한 의미를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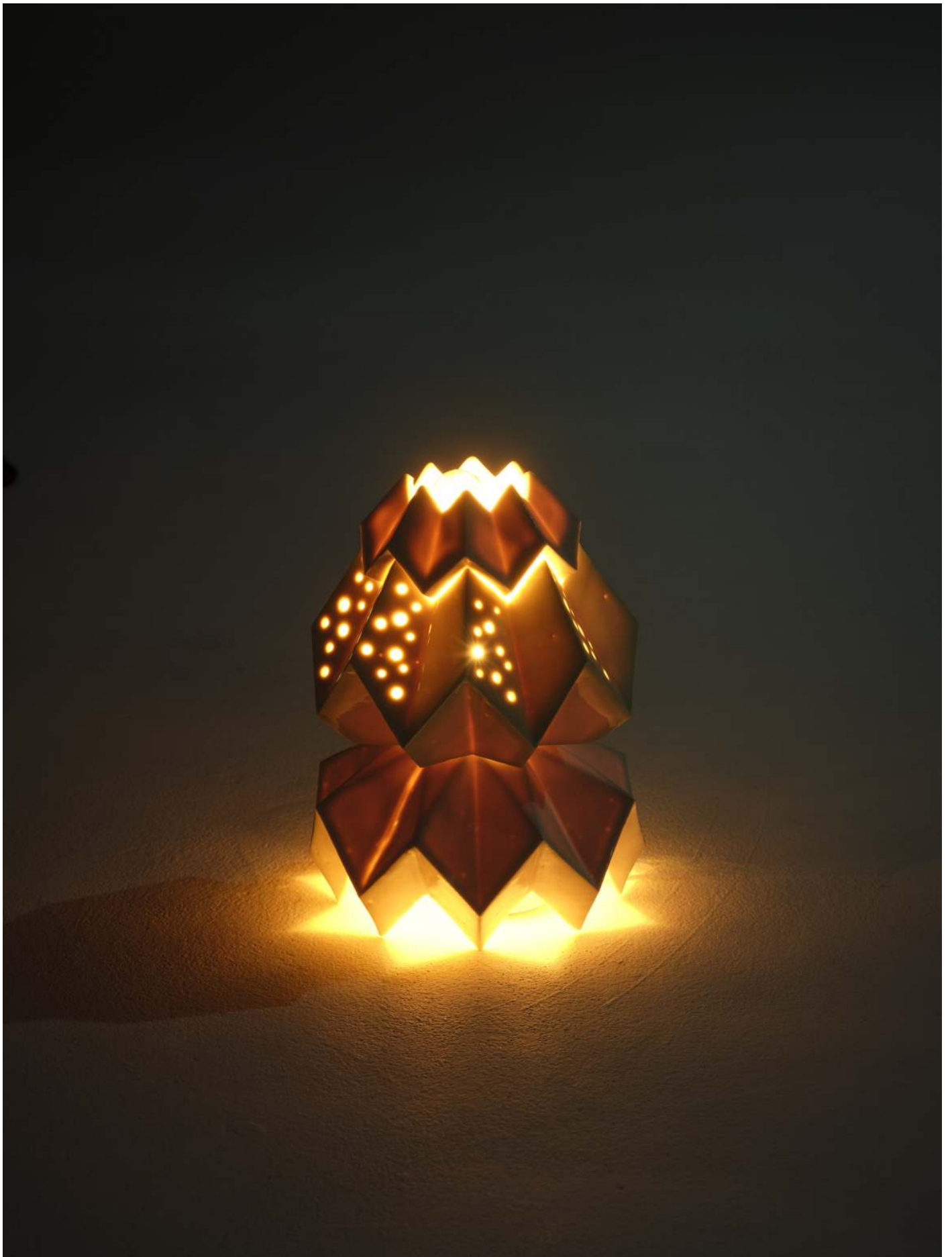
드러난 것들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심리 상태를 그로테스크한 크리쳐의 형태로 표현했다. 감정은 언제나 명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낯설고 불편하며 서로 다른 감정이 복합적으로 얹힌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감정의 모습을 귀여움과 기괴함이 공존하는 크리쳐로 시각화하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의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크리쳐의 형태는 귀엽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요소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덩어리와 돌출된 형태를 조합하여 어딘가 기괴하고 낯선 인상을 주도록 구성하였다. 부드럽고 둥근 형태와 불규칙하게 변형된 형태가 함께 나타나도록 하여, 익숙함과 낯설이 동시에 느껴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감정이 가진 복합적이고 모호한 특성을 드러내고, 관람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들
슈퍼슬립, 안료, 투명유
작품별 상이









드러난 것들
D1, 백자토, 조형토, 투명유
작품별 상이



손예린

Yerin Sohn

@abcd_q_wer

lime0131@naver.com



마음 시리즈 II

마음 가는 대로 만들었다.

좋아하는 물건, 사람, 이야기, 동작.
그리고 흠을 만지면서 좋아하게 된 것들.

좋아하는 것들로 좋아하는 것을 만들었다.



사공과 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여럿이 모이면 휩쓸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이 작업은 이를 뒤집어 "사공이 많아도 바다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바다는 성공적인 결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자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작업 속 '사공'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친구들과 서로 기대어 서 있던 모습을 실제 인체로 재현하기보다 단순한 덩어리로 환원해, 혼자서도 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

'서 있다'는 하나의 상태로,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홀로 있거나 서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사공들은 모이면 모이는 대로,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다이다.



마음 시리즈 II
흑토, 반매트유
작품별 상이







사공과 나
혼합소지
작품별 상이





신혜정

Hyejeong Shin

@_hyejeong_ee

tlsgpwjd1346@gmail.com



imprints

본 작품은 책상 위에서 기능하는 도자기 용기 세트로, 물건을 정돈하는 수납 용기와 간단한 차와 다과를 위한 기물로 구성하였다. 책상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상의 물건을 담고 정리하는 기능과 함께, 사용자의 집중과 사유를 돕는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물의 표면 패턴은 갈래꽃의 구조와 꽃잎이 서로 겹쳐지는 모습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갈래꽃이 꽃잎을 겹치는 네 가지 방식인 포수 모양, 회선상, 기와 모양, 나비 모양을 작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음각의 패턴으로 표현하였다. 겹쳐지는 선과 면은 기물의 표면에 깊이와 리듬을 형성하며, 꽃잎이 포개지는 자연의 구조를 담아낸다.

식물이 꽃잎을 겹치는 것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의 방식이다. 본 작품은 이러한 겹침의 구조를 용기의 기능과 연결하여, 흙 위에 새겨지고 돌출된 꽃잎의 자취를 보호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용기는 책상 위에서 사물을 담고 감싸는 동시에, 사용자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온전한 몰입과 사유에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심리적 공간이 되고자 한다.

켜켜이

본 작품은 인간의 감정과 기억이 언제나 명확한 형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특별하지 않아 쉽게 기억에서 사라지는 감정이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며 내면에 남아 하나의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무의식의 작용을 압축과 응축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며,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험과 감정 역시 내면에 남아 있음을 이야기한다. 본 작품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흔적을 작은 형태들이 모이고 쌓이는 모습으로 구체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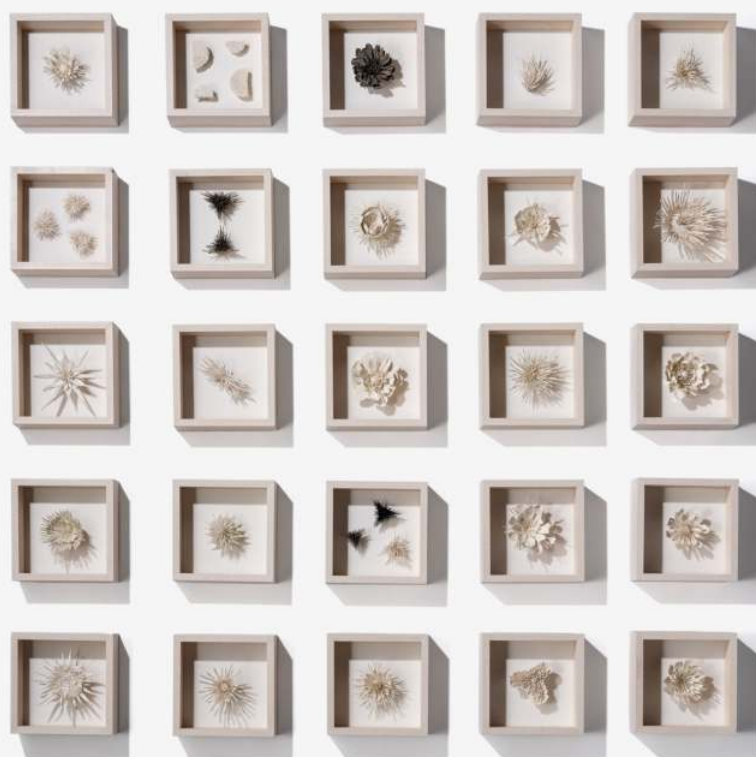
작품을 이루는 유기적인 덩어리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내면에 축적된 감정과 기억의 집합을 나타낸다. 꽃과 산호초, 세포를 연상시키는 형상은 무의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식하고 변화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표현한다. 각각의 형상은 독립된 개체처럼 보이면서도 서로 연결되고 겹쳐지며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

작은 도자 조각을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집적의 과정은 사소하고 미미하게 느껴지는 감정과 기억 또한 서로 모여 하나의 내면을 구성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흔적들이 모여 형성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며, 작품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관객 또한 자신의 안에 쌓여온 감정과 기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imprints
D1, 매트유
작품별 상이





켜켜이
D1, 안료, 무시유
작품별 상이



오미리

Miri Oh

@milhyi_030

mintsky0517@gmail.com

을 기다리며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 오면 해는 유독 짧아졌고, 저녁이 오기 전부터 집 안에는 어둠이 먼저 자리를 잡곤 했다.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오기까지 남겨진 시간 동안 그 어둡고 적막한 공간이 무서웠던 어린 나는 서둘러 집 안의 모든 불을 하나씩 켜며 어둠을 밀어낸다. 부모님이 열고 들어올 문의 짙람이는 종소리를 기다리며.

이 작업은 유년 시절 어두운 집을 밝히며 느꼈던 그 기다림과, 부모님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수국의 조형적 형태에서 출발했다. 꽃잎 사이로 아른거리며 스며 나오는 은은한 빛은 어둠을 밀어내던 기억 속 그 밤의 불빛과 닮아 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에서 기다릴 힘을, 어느 누군가에게는 돌아올 이정표가 될 불빛을.

돌아올 당신을 기다리는 따스한 불빛이 있는 이 집으로.

박제

기억의 형태는 늘 모호하고 몽롱하며, 한 꺼풀 가려진 모습으로 남아 있곤 한다. 마치 비닐에 한 겹 가려진 것들을 손 끝으로 훑어 모양새를 더듬어내는 것 처럼.

스스로 길을 잃은 듯 느끼고, 본래의 나에게서 너무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어 본다.

엄마와 손을 잡고 타던 마을버스, 작은 손으로 한가득 모아두던 투명한 유리 구슬들, 매주 손꼽아 기다리던 미술교실 가는 날, 그리고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던 두발자전거. 흩어지기 쉬운 그 소중한 순간들을 도자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씩 가만히 고정하고 기록하고자 했다.

여섯 개의 틀을 활용한 드레인 캐스팅 기법으로 모호한 기억의 덩어리들을 형태화하는 작업으로, 색슬립으로 그려낸 자연스러운 마블링과 부분 시유의 표현장식을 활용하였다. 이 레이어와 반짝이는 표면들은 겹겹이 쌓이고 또 순간 빛을 내는 기억의 레이어를 닮아 있다. 순간을 포착해 박제한 이 조각들이, 나 스스로를 되찾아가는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을 기다리며
슈퍼슬립, 안료, 무사유
작품별 상이





박제
슈퍼슬립, 무사유
작품별 상이



오윤

Yune Oh

@yunneneee

yuni_ee@naver.com



Lueur

사라지는 순간과 그 자리에 남겨진 감각을 바라본다.
 피하고 싶었던 햇빛의 감각이 어느 순간 가장 따뜻하게 다가왔던 기억에서 시작되었다.
 지나간 순간은 사라지지만, 그때의 감각은 오래 남아 기억과 그리움의 형태로 되돌아온다.

햇빛을 담은 칼라 릴리를 바라보았다.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열리는 칼라의 곡선과 흐름, 꽃이 진 뒤에도 남아 있는 잎의 모습에서 사라지는 순간과 그 이후에 남겨지는 시간을 떠올렸다. 칼라에서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면과 표면의 흐름을 구성하고, 이를 손에 닿는 식기의 형태로 풀어냈다.

본 작업을 마주하며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어떤 감각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나간 순간이 저마다 다른 온도로 다시 머물며, 잊고 있던 따스함과 그리움을 천천히 마주할 수 있기를.



Contents

우리는 종종 가방과 그 속에 담긴 물건을 통해 한 사람의 취향이나 정체성을 읽어낸다. 그에 비해 지금의 모습을 형성해온 과정에 대해서는 쉽게 주목하지 않는다.

본 작업은 가방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의류와 가방이 여러 조각의 패턴을 재단하고 봉제하여 완성되듯, 본 작업 역시 하나의 형태를 분해하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접합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시화한다.

각각의 용기는 경험, 기억, 취향과 같은 서로 다른 조각들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개인의 모습을 은유한다. 완결된 하나의 결과보다 그 안에 남겨진 형성의 흔적에 주목하며, 개인이라는 존재 역시 수많은 경험과 선택들이 이어 붙여져 만들어진 하나의 '콘텐츠'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Lueur
슈퍼슬립, OF - YB128A, PCF18
작품별 상이





Contents
 백조형토, 조형토, 용기토, 골드망간유
 작품별 상이



오한슬

Hanseul Oh

@5h_hanseul

ohhans915@gmail.com



Ping



나에게 터전은 한곳에 정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작업은 여러 장소를 거치며 살아온 경험에서 출발해 터전이 반드시 하나의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나에게 터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이러한 질문을 여러 개의 피스로 이루어진 가구를 매개로 풀어낸다. 각각의 피스는 독립된 상태로 놓이거나 서로 결합해 구조를 이룬다. 피스를 결합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은 한곳에 머무르기보다 여러 위치와 상태를 거치는 나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

내가 거처온 장소와 관련된 숫자를 표면에 남겨, 서로 다른 장소의 경험을 같은 방식으로 위계 없이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내가 여러 장소를 거치며 터전을 인식해온 방식과 연결된다.

가구는 결합과 이동을 반복하며 여러 장소에 놓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는 터전을 하나의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바라본다.



체감하기

작업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배회하며 눈에 걸리는 것들을 관찰하고 수집하는 데서 시작된다. 서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들을 본래의 관계에서 분리하고, 연결하며 다시 구성한다. 이러한 관찰과 재구성의 과정은 작업 전반에서 반복된다.

〈체감하기〉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신체로 이어진다. 몸을 따라 주의를 옮기며 각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감각을 포착한다. 몸을 웅크리고 접을 때 당겨지는 겨드랑이, 굴곡이 드러나는 갈비와 척추, 피부 아래 느껴지는 뼈의 질감과 같이 의식되는 부분을 떼어내어 바라본다. 이렇게 포착한 것은 본래의 위치와 비례에서 벗어나 변형되고, 다른 부분과 접합되며 새로운 형태로 구성된다.

나의 작업에서 체감하기는 배회와 분리, 연결의 과정을 통해 관찰한 것을 직접 다뤄보며 다시 감각하는 일이다.



Ping
혼합소지, 단풍나무
340*400*450, 작품별 상이





체감하기
혼합소지, frp
570*450*820, 작품별 상이



이윤서

Yunseo Lee

@ynseooo

leeyun2301@gmail.com



Mangrove table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는 그곳을 지나온 시간과 기억,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여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남긴 흔적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가 보낸 오늘 역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머무름과 떠남, 사라짐과 새로 생겨나는 것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 속에서 이어진다.

물과 땅의 경계에서 뿌리를 내리는 맹그로브 나무는 이러한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 사방으로 뻗은 뿌리는 부유하는 파편들을 꺼안아 하나의 기반으로 엮어내고, 오랜 시간 쌓아 올려 새로운 땅을 만든다. 스스로 기반을 다져나가는 이 생태적 재건의 과정은 지나온 기억을 품은 채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초상이다.

서로 교차하고 연결되며 위로 뻗어가는 파이프 구조는 개별 존재들이 관계를 맺고 확장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각각의 파이프는 서로의 무게를 지탱하며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그 위에 놓인 상판은 우리의 일상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 누군가의 시간이 머물다 간 자리에 새로운 일상이 깃들듯, 작품은 서로가 남긴 흔적을 딛고 삶의 터전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기억 : 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누군가는 순서를 매기며, 또 누군가는 흩어진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추어 넣는다. 질서를 만드는 일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나의 자리를 가늠하고, 지나온 삶을 이해하기 위한 본능적인 모색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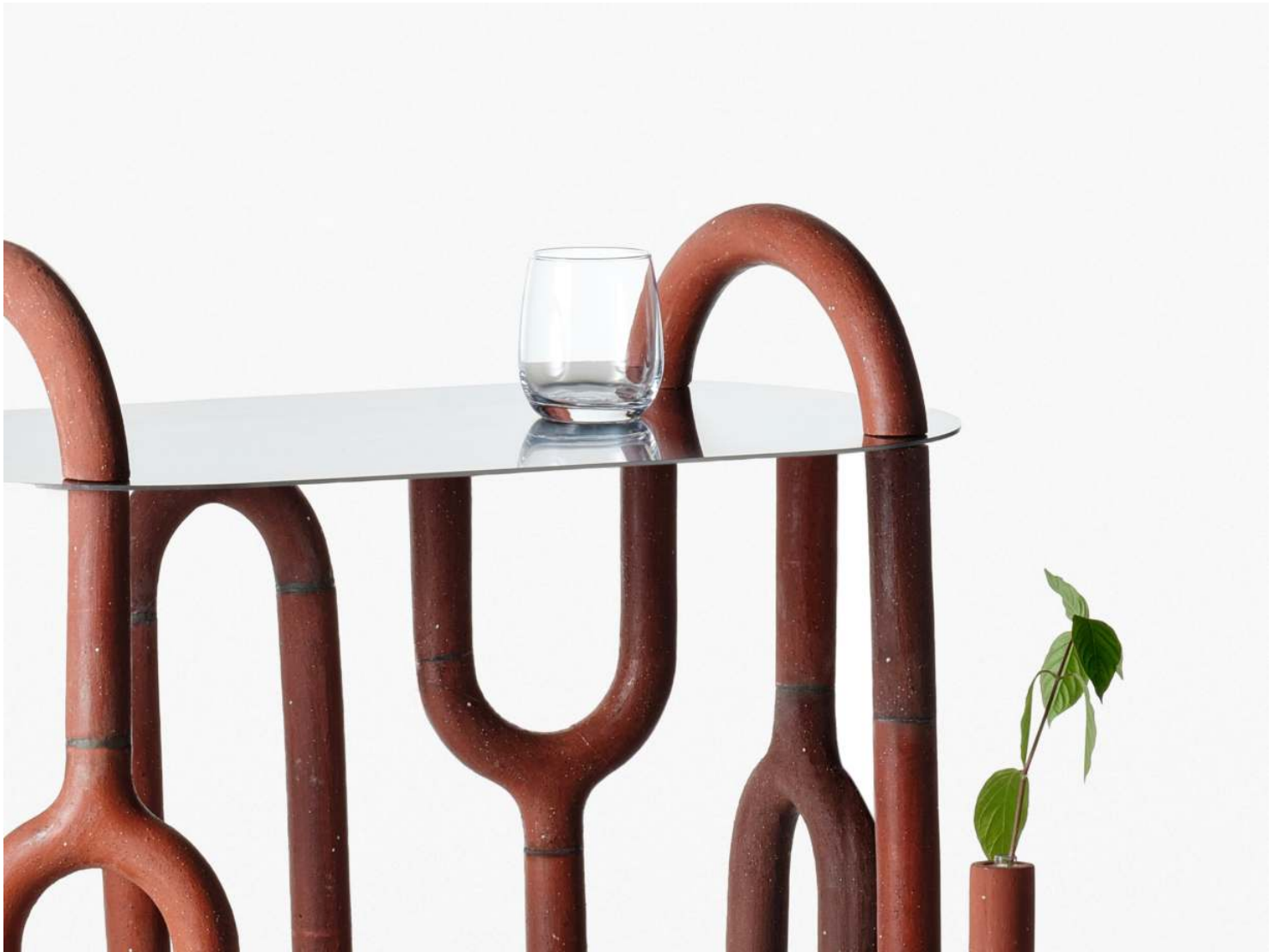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공간의 시학』에서 서랍을 기억과 사유가 깃드는 내면의 은닉처로 바라보았다. 우리 역시 명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기억과 감정을 마음속 각자의 '칸'에 간직한 채 살아간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에도 기꺼이 머물 자리를 내어주고, 뒤섞인 경험을 하나씩 갈무리하는 일. 그렇게 구획을 나누는 행위는 지나온 것들을 밀어내거나 지우는 대신,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식이 된다.

작품 〈기억 : 칸〉은 서랍이라는 구획을 통해 기억과 감정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내면의 질서를 시각화한다. 대칭적이고 단정한 외곽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으며 만들어낸 외면의 질서를 상징한다. 반면 중첩되고 서로 다른 높이로 놓인 내부의 칸들은 한 사람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온 시간과 감정의 깊이를 드러낸다. 비대칭적으로 엮이며 생겨난 틈은 깊숙이 갈무리해둔 마음이 은연중에 외부와 교감하는 경계가 된다.

기억은 언제나 가지런히 정리되지 않으며, 모든 감정이 명확한 이름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기억과 감정에 온전한 자리를 내어주는 일. 그 다정한 조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흩어진 경험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내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Mangrove table
슈퍼슬립, 혼합화장토, 스테인리스 스틸
680*365*870





기억 : 칸
 혼합소지, 천연수세미
 작품별 상이



임성만

Seongman Lim

@10k__.dang

limseongman1011@gmail.com



Corolla Series

꽃은 한순간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봉오리가 열리고, 꽃잎이 펼쳐지고, 가장 총만한 순간을 지나 다시 말리고 시들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모습을 바꾼다. 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느 하나의 순간보다, 하나의 생명이 시간에 따라 형태를 달리해가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Corolla Series」는 꽃의 형태와 그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꽃잎과 꽃받침, 겹쳐지고 벌어지는 유기적인 구조를 기(器)의 형태로 옮기되,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꽃에서 발견한 곡선과 반복, 팽창과 수축의 감각을 흙의 언어로 다시 구성한다.

표면을 덮는 유약 또한 이러한 변화의 일부가 된다. 소성 과정에서 유약은 녹아 흐르고, 움푹한 곳에 고이며, 서로 번지고 침잠한다. 한 표면 안에 나타나는 광택과 저광택, 색의 농담과 흐름은 완전히 통제된 장식이라기보다 불과 중력, 재료의 성질이 남긴 결과이다. 이 흔적들은 꽃이 피어나고 쇠하며 끊임없이 모습을 달리하는 과정처럼 하나의 기물 안에 서로 다른 시간의 표정을 만든다.

나는 「Corolla Series」를 통해 꽃의 완성된 모습을 재현하기보다, 피어나고 변화하며 결국 사라지는 생명의 시간을 하나의 형태와 표면 안에 머물게 하고자 한다.



흔

"흔(痕)"은 사라진 시간과 행위가 물질의 표면에 남기는 흔적에서 출발한다. 흙은 손의 압력과 움직임을 받아들이며 밀리고, 접히고, 갈라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흔적은 불을 거쳐 단단한 표면에 고정되고, 지나간 시간은 하나의 형태로 남는다.

물레로 성형한 기(器)는 무언가를 담기 위한 그릇을 넘어 시간과 기억을 품는 몸체가 된다. 기의 내부에 자리한 빈 공간은 사라진 것들이 머물렀던 자리이자, 다시 무언가가 깃들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표면에 겹겹이 쌓인 흙의 층은 내부에 축적된 시간과 압력이 밖으로 밀려 나온 흔적처럼 자리한다.

반복해서 밀고 접은 흙의 층은 자연 속에서 시간이 쌓이며 만들어지는 선들을 닮았다. 어둡고 거친 표면과 그 사이로 드러나는 틈은 지나온 시간의 상처와 변화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여백을 남긴다.

"흔(痕)"은 사라진 것을 되돌리는 작업이 아닌, 남겨진 흔적 속에서 앞으로 피어날 시간을 바라보는 작업이다.



Corolla Series
백자토
140*140*50





혼
혼합토, 무사유
작품별 상이



조서영

Seoyoung Jo

@whtjd

emilyjo0818@gmail.com



각자의 소리

소리는 기억을 남긴다. 한 번의 울림은 시간과 감정을 불러오고, 지나간 순간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그렇게 소리는 한 사람의 경험에 가까이 닿아 있다.

하나의 삶 안에도 서로 다른 시간과 기억이 쌓인다. 저마다의 순간에 뿌리를 둔 소리가 모여 한 사람을 이룬다. 그 소리는 듣는 이에게 또 다른 기억을 깨우고, 소리가 비롯된 삶을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소리를 산의 형태로 풀어낸다.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상상을 하곤 한다. 작은 울림이 멀리 퍼져나가고, 겹쳐진 소리가 한 공간을 채운다. 산이 그 소리를 받는 자리가 되어, 지나온 시간과 마음을 오래 담아두길 바란다.



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음에도 이상하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감싸는 듯한 공기가 흐르는 순간이 있다. 이것을 침묵이 건네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위로가 꼭 말로 오지는 않는다. 정적인 존재감 속에서 함께 나누는 공기만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작품은 의자의 형상을 띤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신, 등을 맞댄 채 같은 자리에 머문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벽이 서로의 직접적인 소통을 막지만, 말이 사라진 공간 속에서 오히려 서로의 존재가 또렷해진다. 상대를 보거나 설명하지 못해도, 한 공간의 정적을 나누며 조용한 위로가 오간다.

소리는 들림과 침묵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의 존재를 감각하는가. 마음이 병든 이에게 가닿는 침묵의 소리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조용한 곁이 되기를 바란다.



각자의 소리
백조형토, 색 안료
작품별 상이





결
혼합소지, 알루미늄
1600*1060*1120



조서현

Seohyeon Jo

@jshfuckyou

kksj0956@gmail.com



Intro~Outro

본 작업은 인간이 죽은 이후 악마로 환생한다는 가상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 세계에서 죽은 인간은 저승에서 각기 다른 동물의 모습을 지닌 악마로 다시 태어난다. 따라서 환생한 악마의 외형은 단순한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전생에서 경험한 죽음의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환생한 악마들은 인간이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신체와 모습을 가지게 되지만, 저승이라는 무대에서 인간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항상 삶이 지겹고 죽고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이들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된다. 본 작품은 이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인트로, 아웃트로의 개념이다.



○

죽어서도 이승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악마들의 일상을 표현한 오브제이다. 뿔, 날개, 꼬리와 같은 비현실적인 신체 요소와 인간적인 얼굴의 방향, 자세, 의상 등을 함께 구성하여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있는 존재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각각의 인물은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장면보다는 일상적인 자세와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생한 악마 역시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인물과 함께 등장하는 의자, 상자 등의 사물에 도시의 낙서와 흔적을 더하여 초현실적인 존재가 현실의 익숙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익숙한 일상의 요소와 비현실적인 생명체를 한 화면 안에 배치함으로써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장면을 만들고자 하였다.

사후세계가 낙관적이거나 거창한 판타지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싶다. 죽어서도 다 똑같거나 그냥 끝일거라고



Intro~Outro
백자토, 화장토, 전용물감
300*300*270





○
페이퍼클레이, 전용물감
작품별 상이



조영창

Youngchang Jo

@0_window

gotocho@naver.com



정(庭)

정원이 있는 집을 바라보며, 정원은 어쩌면 '비어버린 공간'이 아닐까 생각했다. 만약 사람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하나의 거대한 질량을 가진 덩어리로 본다면, 담장이나 울타리라는 선적인 경계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지 않은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원은 단순히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건축물이라는 질량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 질량과 공백의 관계를 주전자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주전자는 차를 담는 순간 내부가 채워지고, 차를 따라내는 순간 다시 비워진다. 이처럼 차를 담고 따라내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채움과 비움'은 정원이 가진 공백의 성격과 닮았다. 비어 있는 공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아 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주전자는 정원의 '공백'이라는 개념을 차를 마시는 행위와 연결하여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매개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주전자의 손잡이에 시각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손잡이의 내부에 형성된 공간을 정원의 공백으로 바라보고, 그 비어 있는 공간 안에 나무를 심듯이 하나의 감상 요소를 더하였다. 손잡이의 내부 공간은 단순히 비워진 부분이 아니라, 그 공백을 통해 새로운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작용하길 바랐다.



비행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며 창밖으로 바라보는 도시는 한 때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공간이지만, 멀어지면서 작아져 버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은 떠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더 이상 바쁘고 치열해 보이지는 커녕 움직임을 제대로 보이지 않아 정적있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하나하나 방대한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도로와 건물들은 상공에서는 그저 입방체들의 복잡한 나열이 되어 있을 뿐이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눈앞에 닥친 일들이 버겁고 거대해 보일 때도 있지만, 잠시 떠나서 먼 곳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그 순간의 감상을 비행기를 타고 창밖으로 보았던 순간의 장면의 재현을 통해 기록하고자 하였다.



정(庭)
혼합소지
작품별 상이





비행
백자토
600*450*160



지다현

Dahyun Ji

@_hyuncord

dhyun22@kookmin.ac.kr



Schadenfreude

본 작품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서 느끼는 미묘한 쾌락을 뜻하는 심리학적 개념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에 주목한다. 현대 사회에서 SNS와 대중매체를 통해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발생하는 비교와 질투, 그리고 타인의 추락에서 은밀한 위안을 얻는 감정을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식욕'에 빗대어 조형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작품에서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욕망을 충족하고 소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식사를 통해 배를 채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를 느끼듯, 인간의 욕망 역시 충족과 결핍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반복성은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고 소비하며 일시적인 위안을 얻는 샤덴프로이데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작품은 식탁을 인간의 욕망이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타인의 불행을 먹어치우는 식사'라는 형태로 샤덴프로이데를 치환한다. 음식의 형상을 빌려 구체화된 욕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비하며 만족을 얻고 있는지 되묻는다.

이를 통해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보고,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인간 내면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소소(小笑)

'소소(小笑)'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얻는 치유와 위안의 시간에 주목한다.

작품은 설탕 결정이 지닌 단사정계와 비대칭 육각형 구조에서 형태를 발견하고, 이를 재해석하여 조형적으로 구체화한 티테이블웨어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평소 쉽게 지나쳐왔던 내면의 감정에 시선을 기울이고, 스스로를 천천히 돌보는 시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복잡한 다도의 형식과 절차를 덜어내고, 정해진 방식 대신 마음이 이끄는 음료 한 모금과 디저트 한 점을 온전히 즐기는 단순한 시간을 제안한다. 일상 속 이러한 소소한 행위를 통해 외부의 자극으로 채우려 했던 허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순간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Schadenfreude
슈퍼슬림
120*120*90





소소(小笑)
슈퍼슬립
작품별 상이



채희상

Heesang Chae

@hii_128

matin178@naver.com

숨의방

물거미는 물속에서 스스로 공기방울을 모아 자신만의 공기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간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삶을 이어가는 물거미의 모습은, '나만을 위한 시간'의 의미를 떠올리게 했다.

현대의 일상은 타인의 시선과 빠른 흐름 속에서 스스로에게 집중할 시간을 쉽게 잃게 만든다. 나는 누구에게나 잠시 외부의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호흡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와 디저트를 즐기는 시간은 이러한 개인적인 시간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차를 준비하고 천천히 마시며 디저트를 음미하는 과정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를 넘어,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

본 작품은 이러한 생각을 물거미의 생태와 티타임 문화에 빗대어 '숨의 방'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물거미에게 공기방이 물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공간이라면, 나에게 숨의 방은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만의 호흡과 리듬을 되찾는 공간이다.

주전자와 찻잔, 디저트 볼, 접시는 각각 독립된 기물이지만 함께 놓이고 사용될 때 하나의 '숨의 방'을 완성한다. 차를 우리고 디저트를 담아 천천히 음미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용자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작은 의식이 되기를 바란다.

Still Vitality

정지된 구조물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풍경과 달리,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흔들리며 순간마다 다른 모습을 만들어낸다. 물이 머무는 공간에서는 멈춰 있는 일상과 대비되는 살아 있는 감각과, 투명함이 겹쳐 만들어내는 깊이와 신비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연못은 다양한 생명들이 깃들어 살아가는 터전이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수면의 모습까지 변화시킨다. 나는 연못 속을 유영하는 잉어와 그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물결에서, 고요한 풍경 안에서도 지속되는 생명의 힘을 보았다. 이를 통해 정지된 도시의 풍경과 대비되는 생명력과 수면 아래의 깊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형적으로는 물감을 겹겹이 쌓아 깊이와 밀도를 만들어내는 유화의 표현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를 액체 상태의 흙인 슬립에 적용하여, 슬립을 물감처럼 쌓고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요철과 흐름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흙의 우연적인 흐름과 겹침은 수면의 움직임과 그 아래에 잠재된 깊이를 표현한다.

이 작품이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일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작은 연못처럼 다가가기를 바란다. 고요한 풍경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 안에서는 생명이 끊임없이 움직이듯, 우리의 생명력 또한 그 요해보일지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숨의방
슈퍼슬립, 라벤더스톤유, 연두청하유, 루틸블루유
작품별 상이





Still Vitality
D1, 아크릴물감, 에폭시 레진
작품별 상이



16P1 PROFILE 2026

01



권민지
Minji Kwon

@olimiliminzi1
kwonmj1119@naver.com

02



권서연
Seoyeon Kwon

@tjdus.kwon
kwonsy0124@naver.com

06



신혜정
Hyejeong Shin

@_hyejeong_ee
tsgpwjd1346@gmail.com

07



오미리
Miri Oh

@milhyi_030
mintsky0517@gmail.com

08



오윤
Yune Oh

@yunnenee
yuni_ee@naver.com

12



조서영
Seoyoung Jo

@whtjd
emilyjo0818@gmail.com

13



조서현
Seohyeon Jo

@jshfuckyou
kksj0956@gmail.com

14



조영창
Youngchang Jo

@0_window
gotocho@naver.com

03



김다빈
Dabin Kim

@dabynn_
db020314@gmail.com

04



김예진
Yaejin Kim

amy5194@naver.com

05



손예린
Yerin Sohn

@abcd_q_wer
lime0131@naver.com

09



오한슬
Hanseul Oh

@5h_hanseul
ohhans915@gmail.com

10



이윤서
Yunseo Lee

@ynseoe
leeyun2301@gmail.com

11



임성만
Seongman Lim

@10k__dang
limseongman1011@gmail.com

15



지다현
Dahyun Ji

@_hyuncord
dhyun22@kookmin.ac.kr

16



채희상
Heesang Chae

@hii_128
matin178@naver.com

**2026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졸업작품집**

주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지도교수
이상용
정진원
박중원
안정현

테크니션
신경섭

조교
김태림

졸업준비 위원회
오한슬
권민지
손예린
조서영

작품 촬영
몽크 스튜디오

웹사이트 개발
Light of Life

도움을 주신 분
카페비비
민상기

기업 후원

북악도예가회

 동영세라믹스

 www.clayer.co.kr

지승민의 공기

MARKT

공감도

조형화방

개인 후원

허상욱

차민승

민세원

전상민

이송암

오수진

